

암병동 간호사와 일반병동 간호사의 건강상태와 직무스트레스 비교연구

김 현 속(원자력병원 간호사)

연구목적 : 간호사의 심신건강이 환자 간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간호사의 건강은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다. 특히 암은 해마다 증가 추세에 있다. 또한 말기 암 환자의 간호 및 임종장소로서 병원이 증가 추세에 있으며 암환자를 간호하는 간호시간이 증가하고, 암환자의 간호는 급성질환자의 간호와는 다른 특성을 보이고 있다. 이에 본 연구자는 점차 증가하고 있는 암환자를 간호하는 암병동 간호사들과 일반병동 간호사들간의 건강상태를 비교 분석하여 암병동 간호사들의 전문직으로서의 발전을 도모하고 환자에게 질적간호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인력관리와 효율적인 간호행정의 기초를 마련하고자 본 연구를 시도하였다.

연구대상자 : 본 연구는 암병동 간호사와 일반병동 간호사의 건강상태와 직무스트레스를 비교, 분석하기 위하여 서울시내 소재 2개 대학병원의 암병동 간호사와 일반병동 간호사, 1개 암전문병원 간호사, 3개의 국·공립 병원에 근무하는 일반병동 간호사를 대상으로, 암병동 간호사 117명과 일반병동 간호사 134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자료수집 기간은 2001년 9월 13일부터 9월 28일까지였다.

연구도구 : 연구의 도구 중 건강상태 측정도구는 1945년 미국의 Cornell대학의 Weiser, Brosman, Mittelman, Wechler, Wolff등이 고안한 Cornell Medical Services를 고용된 박항배(1980)에 의해 한국인에게 맞게 표준화된 Cornell Medical Index(CMI)를 사용하였다. 직무스트레스측정 도구로는 김매자와 구미옥(1984)이 개발한 간호사가 근무 중에 경험하는 스트레스 측정 도구를 기초로 배인숙(1996)이 수정, 보완한 설문도구를 사용하였다.

연구분석 : 자료처리의 목적에 따라 빈도, 백분율, χ^2 검증, t-test 또는 F-test(ANOVA)를 하였으며, $p < .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변수는 사후검증을 위해 Duncan's test를 하였다. 건강상태와 직무스트레스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를 하여 두 변수간의 관계를 보았다.

연구결과 :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 1) 두 집단간의 일반적 특성에 관한 동질성을 검증한 결과 연령에서만 두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chi^2 = 9.919, p = .007$). 즉, 40세 이상의 군에서 일반병동간호사가 암병동 간호사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2) 두 집단간의 건강상태를 비교한 결과 신체건강상태에서 전반적으로 암병동(평균 19.35 ± 18.34)이 일반병동(14.42 ± 10.59)보다 높았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 = .009$). 두 집단간의 정신건강상태는 암병동(9.00 ± 9.79), 일반병동(7.13 ± 6.35)로 암병동이 전체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암병동 간호사가 일반병동 간호사보다 눈과귀, 심장 혈관계, 소화기계, 신경계, 비뇨생식기계, 질병발생빈도, 과거병력에 있어 신체적 건강상태가 나쁘고 우울과 불안 증상이 많은 것을 시사해 주고 있다.
- 3) 두 집단간 직무스트레스를 비교한 결과 전체적으로 직무스트레스에 대한 정도는 암병동 $3.36 \pm .50$, 일반병동

3.32±.48로 암병동 간호사들이 직무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두 집단간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그러나 세부영역 차이검증에서는 암병동 간호사들이 부적절한보상($t=3.254, p=.001$), 투약문제($t=2.170, p=.031$)에서 일반병동과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은 암병동간호사의 직무에 대한 보상부분에 대한 차후연구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항암제를 다루는 암병동의 특수성이 많이 반영된 것으로 생각된다.

- 4) 일반적 특성에 따른 건강상태를 비교한 결과 신체건강상태는 연령($p=.020$), 자녀수($p=.015$), 종교($p=.032$), 직위($p=.005$), 근무경력($p=.008$), 직무만족($p=.003$), 근무의 활동($p=.045$)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정신건강상태는 직위($p=.010$), 근무경력($p=.017$), 직무만족($p=.003$)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연령이 많을수록, 자녀가 2명이상 일수록, 종교가 있고 직위가 높고 근무경력이 많고 직무에 만족하고 근무의 다른 활동을 하는 간호사일수록 일반적으로 건강상태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 5)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직무스트레스를 비교한 결과 직무만족도($F=5.285, p=.006$), 간호직 종사예정($F=3.822, p=.023$)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직무에 만족할수록 간호직종사예정에서 평생직으로 생각할수록 직무 스트레스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 6) 두 집단간 건강 상태와 직무스트레스간의 관계에서는 신체, 정신증상모두 직무스트레스와 유의한 순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즉, 건강상태가 좋지 않을수록 직무스트레스를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및 제언 :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해볼 때 암병동 간호사의 건강상태 및 직무스트레스가 일반병동 간호사에 비해 전반적으로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점차 증가하고 있는 암환자를 간호하는 암병동 간호사는 다른 부서보다 대상자들의 신체, 정신적 간호가 더욱 필요한 상황임을 고려해 볼 때 암병동 간호사들의 전문화와 건강상태의 유지, 증진을 통한 직무스트레스 감소는 대상자들에 대한 간호의 질을 높이고, 업무수행에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이다. 그러므로 암병동 간호사의 전문화와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찾고 이를 위한 지속적인 연구와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간호사들의 건강상태를 개선함으로써 직무스트레스도 감소시킬 수 있으므로 이를 위한 행정적인 직무환경개선 노력이 지속적으로 요구된다.